



2012년 12월 12일

#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 투자전략

유럽발 기저효과는 가능한가 (7) : 이탈리아

## • 이머징마켓 동향

신규대출 예상 하회, 중화권 증시 소폭 반락

##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대양전기공업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LS 외 5종목

## • 산업/기업분석

자동차, 비아트론

## • 스몰캡분석

인텍플러스, 티에스이

##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 증시 캘린더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04(화)	12/05(수)	12/06(목)	12/07(금)	12/10(월)	12/11(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35.18	1,947.04	1,949.62	1,957.45	1,957.42	1,964.62	
	등락폭	-4.84	11.86	2.58	7.83	-0.03	7.20	
	등락종목	상승(상한)	368(7)	365(4)	387(10)	409(8)	364(8)	385(3)
		하락(하한)	430(5)	444(5)	429(3)	395(1)	465(7)	417(6)
	ADR	82.86	81.96	84.26	85.29	84.70	88.61	
	이격도	10 일	100.87	101.16	101.03	101.19	100.94	101.10
		20 일	101.52	102.11	102.16	102.42	102.27	102.45
	투자심리	50	6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288	484	336	413	361	400	
	거래대금 (십억 원)	2,799	3,994	4,598	4,412	3,607	4,427	
코스닥	코스닥지수	502.71	496.50	488.03	489.22	489.59	481.59	
	등락폭	3.74	-6.21	-8.47	1.19	0.37	-8.00	
	등락종목	상승(상한)	463(10)	275(7)	339(6)	489(7)	412(8)	306(3)
		하락(하한)	444(4)	660(11)	587(3)	437(3)	509(10)	622(16)
	ADR	82.53	79.20	78.40	79.06	78.42	79.51	
	이격도	10 일	101.15	99.81	98.28	98.72	98.92	97.54
		20 일	100.21	99.19	97.80	98.35	98.74	97.44
	투자심리	60	60	50	50	60	60	
	거래량 (백만 주)	346	423	354	366	296	346	
거래대금 (십억 원)	1,646	2,079	1,975	1,967	1,450	1,596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906.5	1,276.9	1,217.8	195.5	162.9	306.1	54.6	36.4	331.1	52.0
	매도	2,187.4	1,083.3	1,131.1	281.7	152.0	280.0	49.6	36.8	211.5	51.4
	순매수	<b>-280.9</b>	<b>193.6</b>	<b>86.7</b>	<b>-86.2</b>	<b>10.8</b>	<b>26.1</b>	<b>5.0</b>	<b>-0.5</b>	<b>119.5</b>	<b>0.6</b>
	12월 누계	<b>-757.8</b>	<b>1,196.0</b>	<b>-382.3</b>	<b>-85.2</b>	<b>-17.8</b>	<b>-161.3</b>	<b>-11.1</b>	<b>-23.5</b>	<b>185.3</b>	<b>-55.9</b>
	12년 누계	-13,025.8	14,328.7	3,537.3	1,474.3	2,639.5	-5,005.8	71.8	475.3	3,445.0	-4,840.2
	코스닥	매수	1,450.8	67.2	78.7	9.4	15.2	25.8	2.4	3.4	17.5
매도		1,421.0	68.3	105.8	16.8	14.3	39.8	8.6	5.2	18.3	16.2
순매수		<b>29.8</b>	<b>-1.1</b>	<b>-27.1</b>	<b>-7.4</b>	<b>0.9</b>	<b>-14.0</b>	<b>-6.2</b>	<b>-1.8</b>	<b>-0.8</b>	<b>-1.6</b>
12월 누계		<b>67.1</b>	<b>-24.1</b>	<b>-91.0</b>	<b>-32.7</b>	<b>-1.2</b>	<b>-58.7</b>	<b>-13.2</b>	<b>-5.4</b>	<b>13.2</b>	<b>48.0</b>
12년 누계		1,264.5	18.6	-492.4	14.6	78.8	-606.3	-285.0	-39.1	330.9	-790.7

## 유럽발 기저효과는 가능한가 (7) : 이탈리아

12월 월간 밴드	1,870-2,03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400pt
12MF PER	9.36배
12MF PBR	1.05배
Yield Gap	7.8%P

- ▶ 2013년 2월 이탈리아 총선 :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 낮다
- ▶ 중도 좌파 성향의 베르사니 부상의 의미 : 무조건적인 긴축 패러다임의 완화
- ▶ 투자전략 : Risk-On Trade 여전히 유효

### ■ 2월 이탈리아 조기 총선 :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 낮다

#### 2013년 2월 이탈리아 조기 총선 실시할 듯

문제의 인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1936년생이며, 우리 나이로 77세다. 나이는 많지만 영향력이 여전히, 지난 목요일 그가 지휘하는 자유국민당(PDL)이 몬티 내각 지지를 철회하면서 이탈리아는 내년 2월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됐다.

이 경우 리스크 요인은 ▲ 모범생이라 불렀던 이탈리아의 긴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과 ▲ 상원과 하원의 집권당이 달라져 정치적 교착상태(Gridlock)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 두 가지다.

#### 리스크 요인 아닐 듯 : 베를루스코니 지지를 떨어지고 중도 좌파 베르사니 지지를 올라가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베를루스코니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리서치 기관 SWG에 의하면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베를루스코니를 지지한다는 답변이 지난 11월 30일의 14.3%에서 13.8%로 0.5%P 하락했다. 2008년 4월 총선의 37.4%에 비하면 초라한 수치다.

반면 1위를 달리고 있는 정당은 61세의 베르사니가 이끄는 민주당(PD)이며 11월 말에 비해 지지율이 30.3%로 소폭 상승했다. 베르사니는 몬티 내각이 표방한 ‘긴축 및 재정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 수준의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내년 조기 총선에서 다수당이 바뀐다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2005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에서는 근소한 차로 승리하든, 압승을 거두든 1당에 하원 전체 의석인 630석 중 340석을 배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베를루스코니와 그릴로가 연합하면 1당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 풍자 코미디언 출신 그릴로는 TV 프로그램에서 베를루스코니를 ‘사이코 난쟁이’라고 부르며 자주 비방했던 사람이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인다.

<표 1> 이탈리아 여론조사 결과 : 베를루스코니의 정당 지지율 큰 폭으로 하락

당	당수	08년 4월 총선	11월 30일 조사	12월 5일 조사
민주당(PD)	베르사니	33.2%	30.0%	30.3%
자유국민당(PDL)	베를루스코니	37.4%	14.3%	13.8%
Five Star Movement	그릴로	-	19.5%	19.7%
Union of Centrists	카시니	5.6%	4.1%	5.2%

자료: SWG, 한국투자증권



중도 좌파 성향의 베르사니  
부상의 의미가 주식시장에  
의미하는 바 : 무조건적인  
긴축 패러디임의 완화

그러나 이는 최악의 상황일 뿐,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베를루스코니의 자유국민당(PDL) 지지율이 2008년 총선에 비해 크게 낮아진데다, 몬티 내각 지지를 철회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0.5%p 더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오히려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중도 좌파 성향의 베르사니가 부상한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베르사니는 1951년생, 우리 나이로 62세이며 1996~99년까지 경제개발장관, 1999~2001년까지 교통장관, 2006~08년까지 다시 경제개발장관을 지낸 전형적인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이는 몬티와 유사하다. 또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주로 노동조합이라, 무조건적 긴축보다는 성장을 중요시 여긴다.

그는 지난 주 민주당 경선 승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리오 몬티 현 총리의 테크노크라트 정부의 재정 규율을 존중하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몬티 총리가 시행한 긴축 정책을 소폭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풀어 말하면 ‘재정개혁과 긴축이라는 기본 입장은 변함 없으나, 당장의 경기침체과 실업이 너무 심각해 긴축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표 2> 내년 2월 이탈리아 조기 총선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들

인물 약력	
	- 피에르 루이지 베르사니(Pier Luigi Bersani) - 1951년생, 중도좌파 성향. 1996~99년 경제개발장관, 1999~2001년 교통장관, 2006~08년 경제개발장관을 지낸 관료 출신 - 지난 12월 3일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60.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차기 총리 후보로 부각 - 마리오 몬티 현 총리의 긴축 중심의 예산안 수용 입장
	-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 1936년생, AC 밀란 구단주, 이탈리아 최대 미디어그룹 소유 - 2001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리직 수행 - 부패, 여성편력, 언론조작 등으로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으나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우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 베페 그릴로(Beppe Grillo) - 1948년생, 이탈리아의 유명한 정치 풍자 코메디언 - 5 Star Movement로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예상 외의 돌풍을 일으켜 다수의 시장과 시의원을 배출. - 유로 탈퇴와 국채 지불불능 선언 등 극단적 주장. 반부패, 반 EU, 환경운동, 인터넷을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옹호. 트위터 팔로워 조작 의혹, 소속 시의원 마약판매 혐의 등의 문제

자료: 위키백과, 언론 보도, 한국투자증권

■ 투자전략 : Risk-On Trade 여전히 유효

이탈리아 정치권의 혼란을 해석하는 방법

필자는 유럽을 좋게 보고 있다. 그간 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3년 상반기는 유럽 때문에 올라가는 장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 살던 집을 차압당해 거리로 쫓겨나게 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채권자는 강압적으로 돈 갚으라는 요구를 하지 못한다. 시간을 주고 천천히 벌어들여 갚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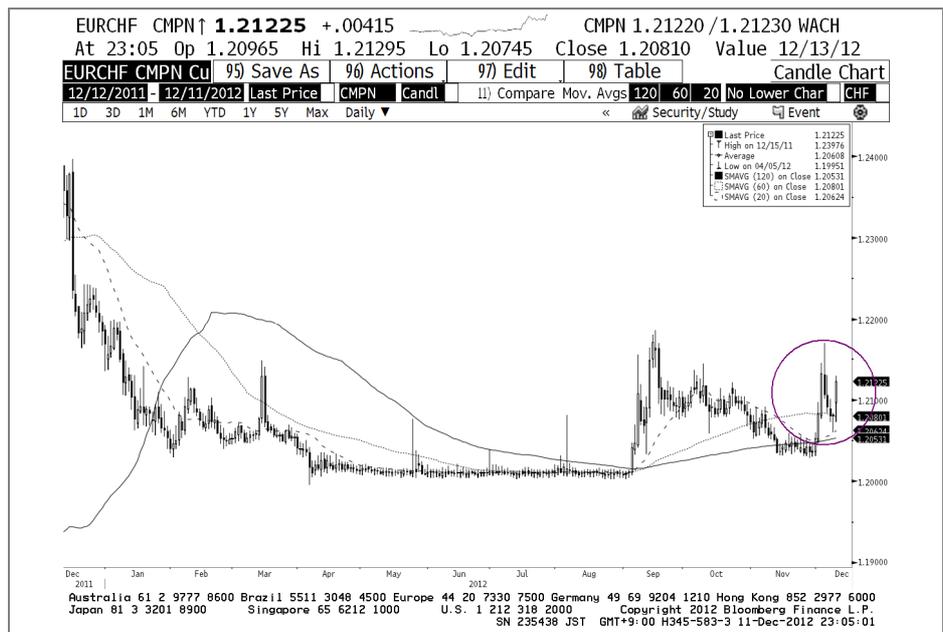
최근 긴축을 요구하는 독일의 목소리가 다소 약화되고, 긴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의 부채탕감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선화했고 IMF의 라가르드 총리는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위기국에서는 긴축을 완화하겠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져주는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정계 복귀와 관련된 잡음도 크게 보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 몬티가 물러난다 해도, 현재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베르사니 후보는 중도적 성향의 정치인이라 기존 재정개혁 법안들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다. 긴축의 강도는 다소 약화되겠지만, 이러한 과정이 체력을 비축해 재정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 플랜의 일환이라는 점만 시장에 이해시킨다면 비교적 수월할 것이다. 개혁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독일과 시장은 베르사니를 지지해야 하는 상황이며, ECB의 OMT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극단적 시나리오 상정은 지나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날 유럽발 기저효과다. 12월 1일 출범한 스페인 배드뱅크, 2013년 출범 예정인 은행연합, 정부의 긴축 강도 약화 및 은행권 디레버리징의 완화 조짐 등은 내년 상반기 유럽 매크로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경기소비재 중심으로 ‘억눌렸던 소비(Pent-up Demand)’가 회복되는 과정을 기대하며, 실제 지표 회복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시점은 내년 1분기 말 즈음으로 보고 있다.

Risk-On Trade는 여전히 유효하다. 11일 밤 11시 현재 EUR/CHF 환율은 다시 큰 폭으로 상승, 스위스프랑에 대한 극단적인 선호가 완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림 1] EUR / CHF 환율 : 유로 대비 스위스프랑 약세 재차 가속화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신규대출 예상 하회, 중화권 증시 소폭 반락

- ▶ 중국 인민은행, 11월 M2 증가율 13.9% (전월치 14.1%, 예상치 14.1%)
- ▶ 중국 인민은행, 11월 위안화 신규대출 5,229억 위안, 전년동월비 400억 위안 감소
- ▶ 홍콩 금융관리국, 11일 외환시장 추가 개입, 10월 이후 총 19차례 650억 홍콩달러 매도

상해종합지수 하락  
유틸리티, 출판, 제지 등  
업종 약세 주도  
석탄, 음식료주 상승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사흘 만에 반락했다. 거래금액은 679억 안으로 직전 거래일에 비해 축소됐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의 11월 은행 신규대출 규모가 예상을 하회 하면서 장 중 은행주와 부동산주가 약세로 전환했다. 반면 유해물질 첨가 의혹이 해소된 귀주마오타이는 큰 폭으로 반등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지표가 예상을 웃돌며 개선된 만큼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1.5%), 출판(-1.4%), 제지(-1.1%), 건설(-1.0%), 보험(-0.9%), 증권(-0.8%), 시멘트(-0.8%), 자동차(-0.8%), 정유/화학(-0.7%), 통신장비(-0.7%), 석유/천연가스(-0.6%), 제약(-0.6%), 가전(-0.5%), 은행(-0.4%), 여행(-0.4%), 철강(-0.3%), 비철금속(-0.3%), 부동산(-0.2%) 등 대다수 업종이 하락했다. 반면 석탄, 음식료 업종은 강세를 유지했다.

###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약보합세 마감  
광업, 보험 등 대다수 업종  
하락. 은행주 강세

홍콩H지수는 약보합세로 마감하며 5거래일 간의 상승랠리 후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 타결 기대감에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중국 수출입지표에 이어 신규대출이 예상을 하회한 데 따른 부담으로 장 후반에 반락했다. 11월 중국의 신규대출은 5,229억 위안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중국기계 등 주요 기업들의 IPO 계획에 따른 부담과 차이실현도 하락 요인이었다. 광업, 건설, 헬스케어, 에너지 등 대다수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고 도시화 호재로 연일 급등했던 건설자재 관련주도 반락했다. 반면 은행주는 강세를 유지했고 식품 관련주도 소폭 반등했다.

####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2/11(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074.70	-0.44	5.04	4.78	-5.67
홍콩 H	10,991.86	-0.02	4.45	3.48	10.62
인도 SENSEX	19,416.53	0.04	0.35	0.40	25.63
러시아 RTS	1,480.82	0.00	2.56	3.08	7.16
브라질 보베스파	59,248.23	1.30	1.80	3.09	4.39
베트남 VN	389.37	0.69	1.90	3.06	10.76
MSCI 이머징마켓	1,029.06	0.49	2.16	2.19	12.29

주: 11일 오후 5시 20분 기준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1,960P선 탈환에 성공

- 미국 증시는 상승 모멘텀 부재 속에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단독 회동으로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며 소폭 상승세로 마감.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의 차익실현 매도에도 불구하고 9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간 외국인과 연기금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1,960P선 회복에 성공. 반면,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며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 1.6% 이상 급락하며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코스피 상승세에 힘입어 2%대 강세를 보인 증권업종의 상승세가 돋보인 가운데 국내 최초 해상풍력용 대형 발전기 개발에 성공한 현대중공업이 강세를 보임. 영업환경 개선으로 내년도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STX팬오션이 상한가에 가까운 강세를 보였으며, STX조선해양 등 STX그룹주도 동반 강세를 나타냄. 또한,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며 이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 부각된 석유화학, 철강, 기계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18대 대선을 1주일 남짓 앞두고 대선 후보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며 코스닥 지수 하락을 이끌었으며,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2년 만에 또다시 감자를 결정한 금호산업은 신저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b>현대중공업(009540)</b> <b>▶225,500(+3.92%)</b>	<b>국내 최초 해상풍력용 대형 발전기 개발 소식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기에 장착하는 5.85MW급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PMSG)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강세</li> <li>- 지난해 8월부터 해상풍력 부유식 하부구조물과 관련한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해상변전소 설계에 착수하는 등 해상풍력에너지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li> </ul>
<b>STX팬오션(028670)</b> <b>▶3,265(상한가)</b>	<b>내년도 흑자전환 기대감에 상한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분기 벌크사업 부문의 영업상황이 호전을 보이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내년도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상한가</li> <li>- 계절적 비수기인 여름을 지나 수송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3분기 380척 수준이던 운영선대를 최근 400척 이상으로 늘렸으며, 선박 평균 가동률도 98%에 이른 것으로 추정</li> </ul>
<b>증권주</b>	<b>코스피 상승세에 힘입어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간 외국인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며 강세</li> <li>- 한화투자증권(003530, +7.20%), 한국금융지주(071050, +4.76%), 우리투자증권(005940, +4.19%), 대우증권(006800, +3.70%), 동양증권(003470, +3.50%) 등 강세</li> </ul>
<b>석유화학주</b>	<b>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황 우려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옴에 따라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li> <li>- 금호석유(011780, +7.23%), 카프로(006380, +6.38%), 대한유화(006650, +4.00%), 호남석유(011170, +3.39%), LG화학(051910, +2.83%) 등 강세</li> </ul>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 유망종목: 대양전기공업 외 5개 종목

### - 신규 편입 종목

<b>대양전기공업</b> (108380)	- 선박용 조명기구 전문회사로 해양 플랜트 조명으로 사업영역 확대. 추가로 군함용 통신시스템 및 배전반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센서를 신사업으로 추진 - 주력인 선박 조명과 플랜트, 방산 등 전 분야에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용 압력 센서에 대한 국내 완성차업체의 국산화 의지와 맞물려 2013년부터 가시적인 성과 기대					
	(원, 십억원, 배)	<b>매출액</b>	<b>영업이익</b>	<b>순이익</b>	<b>EPS</b>	<b>PER</b>
	2012. 12F	120	14	12	1,316	10.1
	2013. 12F	132	16	14	1,467	9.1

- 편입 제외 종목: CJ E&M(시세 부진으로 제외 -7.5%)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MDS테크 (086960)	12,850 (-1.5)	13,050 (11/30)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OS, 애플리케이션, 개발툴) 전문업체로 차량 및 국방/항공 분야 IT융합 수요 확대 등으로 중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 4분기에는 계절성(연말 고객사 SW관련 예산 소진)과 더불어 현대오트론 등 자동차 전장회사향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성장성, 기술 경쟁력, 진입장벽 등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동일금속 (109860)	13,950 (+5.7)	13,200 (11/20)	- 크롤러크레인 트렉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국내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제품다변화를 통해 2012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글로벌 광산 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초대형 굴삭기 트렉슈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 독창적 아이টে็ม으로 가격 경쟁력, 일괄공정체제로 원가경쟁력
엠케이전자 (033160)	4,750 (+13.5)	4,185 (11/02)	- 최근 본딩와이어 시장은 비용부담이 큰 골드(Gold)본딩와이어의 대체품으로 구리를 사용한 본딩와이어(PCC; Pd Coated Copper Wire)가 개발돼 시장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임, 동사는 글로벌 구리본딩와이어 시장에서 일본 NMC사에 이어 M/S 2위 기록 중 - 현재 구리본딩와이어는 대만 패키지 업체들로 주로 공급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칩메이커들로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PCC의 매출 확대에 의해 2%대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로엔 (016170)	12,550 (-13.1)	14,450 (11/02)	- 2013년 음원가격 상승으로 멜론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함께 SKT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성장성 부각 가능성 - 저작권 보호, 콘텐츠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보유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수직 계열화된 사업부문의 경쟁력,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골프존 (121440)	61,200 (+9.3)	56,000 (10/18)	- 스크린골프 라운딩수 증가와 유료라운딩을 상승으로 네트워크 매출 호조,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 비전의 양호한 매출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 또한 골프존 아카데미, 골프존 마켓 등 기존 신규 사업 외에 무료 필드 부킹과 디지털 캐디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추가 수익원 발굴 노력을 주목할 필요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골프존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LS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LS (006260)	91,500 (+4.6)	87,500 (11/20)	12,291	574	234	8,410	10.9
			- 2013년에는 LS전선과 LS산전의 실적 개선 예상. LS전선은 고수익 제품인 해저전력선의 해외 프로젝트가 실적에 반영되고 중동 초고압 전력선의 호황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예상 - 또한 LS산전은 이라크를 필두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대, 신규 사업 적자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 예상. LS니교동제련도 도시광산 자회사의 성장으로 이익 증가 전망				
삼영이앤씨 (065570)	7,420 (+2.5)	7,240 (11/07)	46	11	9	1,023	7.3
			- 방산부문의 안정적인 수요, 선박안전 관련 규제 강화(Solas협약, 어선법), 일본 및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세,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 안정적인 재무구조, 우호적인 시장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리레이팅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476,000 (+13.6)	1,299,000 (10/30)	203,704	28,800	22,831	151,499	9.7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최근 갤럭시노트10.1의 호평에 힘입어 태블릿의 경쟁력 부각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42,000 (-6.9)	260,000 (10/23)	2,377	633	503	11,428	21.2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KCC (002380)	291,000 (+4.3)	279,000 (9/27)	3,434	225	696	70,906	4.1
			-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 입주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함에 따라 이익의 Down-side Risk 완화. 전략적 지분 매입을 통한 Captive market(올해 1월에는 에버랜드 주식 매입)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안정성 확보 - 전방산업의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이익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LG화학 (051910)	327,000 (+0.3)	326,000 (9/17)	24,006	2,177	1,627	22,136	14.8
			-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LCD용 유리기판,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3분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NHN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NHN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자동차: 수입차 점유율 상승 영향은 제한적

### ■ 수입차 점유율 상승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

수입차의 국내 시장점유율 상승이 현대차와 기아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 3가지 이유 때문에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 320,000원(12개월 forward PER 10배 적용, 역사적 평균치에 10% 할증)과 105,000원(12개월 forward PER 10배, 업종 평균 PER)을 유지한다.

### ■ 1. 꾸준한 현대차, 기아차의 내수 시장점유율

11월까지 수입차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3.7% 증가한 120,195대를 기록해 점유율이 전년동기 6.7%에서 8.6%로 상승했다. 그러나 수입차를 포함한 현대의 점유율은 전년동기와 같은 43.4%, 기아는 전년동기 31.1%에서 31.2%로 소폭 상승했다. 이로써 같은 기간 르노삼성의 점유율이 7%에서 3.8%로 급락했고 이를 상당부분 수입차가 잠식했다. 특히 10년부터 지속되는 수입차 판매 강세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점유율은 08년부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 ■ 2. 수입차 판매 강세의 긍정적인 영향

11년 국산차의 수출대수는 315만대, 국내 수입차 판매는 105,037대로 여전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무역 마찰을 야기시킨다. 지난 8월 프랑스 정부가 현대와 기아를 대상으로 ‘우선감시 요청’을 한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EU 집행부는 양사의 현지 공장 건설과 국내 유럽차 판매의 약진 때문에 그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11월 유럽차는 국내 수입차판매의 75%를 차지했고 일본차와 미국차는 각각 17.4%, 7.6%를 기록했다.

### ■ 3. 수입차 판매 증가율 둔화될 전망

12년 수입차 판매는 전년대비 25.7% 증가한 13만 2천대로 추정된다. 13년에는 15만대로 예상되어 증가율은 13.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차 판매 증가율이 11년 16.5%에서 급등한 이유는 FTA(EU 11년 7월, US 12년 3월)의 발효와 9월 11일부터 시작된 개별소비세 1.5%p 인하 때문이다. 이로써 향후 FTA 효과 감소, 12년 말 개별소비세율 인하 만료로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젊은층의 수입차 구매 비중 급증은 ‘카푸어’라는 신조어를 만들 만큼 부작용을 낳고 있어 향후 증가율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30대의 개인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년 30.7%에서 올해 11월까지 46.3%로 상승했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2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비아트론(141000)

<b>매수(신규)</b>
목표가: 18,000원
종가(12/10): 12,500원

## 고사양 디스플레이 생산 확대의 수혜주

### ■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8,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18,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wd EPS 1,792원에 목표 PER 10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목표 PER 10배는 2010년 OLED산업 설비투자 초창기의 OLED장비산업의 평균이다. 201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5%, 81% 증가할 전망이다. 패널업체들의 고사양 디스플레이 생산능력 증설이 본격화되면서 열처리장비의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높은 실적 성장성에도 현재 주가는 2013년 EPS 기준 PER 7배로 저평가되어 있다.

### ■ 패널업체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 변화의 수혜

패널업체들은 낮은 수익성을 극복하기 위해 commodity패널의 생산능력 증설보다는 fab upgrade를 통한 고사양 디스플레이 생산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12년 하반기부터 5세대급 이상의 고사양 생산라인 내 전환투자가 시작돼 열처리장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열처리장비시장은 1) 중소형 세대에서는 LTPS라인 증설을 통해, 2) 대형 세대에서는 Oxide TFT라인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3년 열처리장비 시장은 전년 대비 60% 증가해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 ■ 열처리장비 시장 점유율 2012년 34%, 2013년 35%

동사는 인라인타입 장비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열처리장비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 확보가 가능하다. 인라인타입 장비는 주요 패널업체들의 LTPS라인 내 선수축, 활성화 공정에 공급될 전망이다. 배치타입의 경우에는 경쟁업체들이 있지만, 주요 패널업체들의 8세대 Oxide TFT라인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되어 있어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OLED산업의 설비투자 모멘텀 약화에 따른 우려도 제한적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22	7	7	8	2,463	526.6	8	NM	NM	NM	104.6
2011A	47	10	11	10	1,394	(43.4)	11	NM	NM	NM	58.7
2012F	59	12	12	10	1,023	(26.6)	13	12.2	8.4	2.4	27.2
2013F	97	22	22	19	1,837	79.6	24	6.8	4.4	1.8	30.1
2014F	113	27	27	23	2,226	21.2	31	5.6	3.2	1.4	27.4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2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인텍플러스 (064290)

종가(12/10): 4,805원

### 지금은 실적 개선을 이끌만한 요소를 탐색하는 시기

#### ■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검사장비 업체

동사는 여러 산업에 걸쳐 후공정에 사용되는 2D/3D 외관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1995년에 설립되어 2011년 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사업부는 크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태양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매출 누적기준 각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반도체부터 72.5%, 1.1%, 6.2%, 수주 없음 등이다. 지난해 44.8%의 매출비중을 차지했던 반도체 사업부의 비중이 올해들어 급증한 이유에는, 타 사업부의 부진도 있었지만,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의 Flip Chip(와이어리스 본딩 칩) 방식 채택 제품의 수요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실적이 감소했지만, 회사는 꾸준히 발전을 꾀함

동사는 비록 전방산업의 투자 감소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를 타파하기 위해 꾸준히 사업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반도체 외관 검사장비 분야에만 사업이 국한됐었지만, 이후 LED, 태양광 분야로 사업이 확대되었으며, 지난해에는 LCD 디스플레이 외관 검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함에 따라 현재에는 4개의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부 내에서도 타 분야로의 진출을 꾸준히 도모하고 있는데, 특히 매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부의 경우 SSD(Solid State Disk) 및 Substrate(반도체 실장 기판) 부문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나, 기대되고 있다.

#### ■ 지금은 실적 개선을 이끌만한 요소를 탐색하는 시기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261억원(-9.7% YoY) 및 영업이익 9억원(-81.2% YoY)으로 지난해 대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업황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힘든 한 해를 보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1) 내년의 경우 Flip-chip/SSD 및 LED 조명 향 수주만으로도 올해 이상 수준의 매출이 기대되고, 2)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동사의 검사장비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군이 턴어라운드될 경우 2013년 실적이 올해 대비 개선될 여지가 있다. 동사의 기술력 및 다양한 제품군을 감안할 경우, 추후 수주 변동 추이를 지켜보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매출액 (십억원)	증감률 (%)	영업이익 (십억원)	증감률 (%)	순이익 (십억원)	증감률 (%)	EPS (원)	PER (x)	PBR (x)	ROE (%)	부채비율 (%)
2009A	16.1	4.8	1.5	17.6	2.6	118.6	319	NM	NM	27.9	82.6
2010A	33.5	108.7	6.3	311.4	5.8	161.7	939	NM	NM	39.4	91.9
2011A	28.9	(13.7)	4.9	(21.7)	4.9	(28.3)	544	9.7	1.7	19.1	48.0
2012F	26.1	(9.7)	0.9	(81.2)	1.1	(76.6)	129	37.4	1.5	4.1	67.6
2013F	30.0	14.9	3.3	253.1	3.2	183.7	365	13.2	1.3	10.8	64.1

주: 1. 2009~10년도 K-GAAP 개별 기준, 2011년도 이후 K-IFRS 별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2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티에스이 (131290)

종가(12/10): 7,320원

## 전방산업의 CAPEX 윤곽이 드러나는 내년을 기다리며...

### ■ 반도체 및 LED 검사장비 전문 업체

반도체 및 LED 검사장비 전문 기업으로 1995년 설립되어 2011년 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설립 초기에는 반도체 Interface Board(후공정의 최종 검사단계 시 사용되는 장비)로 매출이 국한됐었지만, 2003년 Probe Card(반도체 전공정이 완료된 웨이퍼 상태를 검사하는 핵심 부품)에 이어 2004년 LED 검사장비 부문으로도 사업 범위를 넓이면서, 현재의 매출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의 50% 가량을 차지했던 Probe Card의 매출이 전년 대비 급감한 가운데, 최근 2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2013년 투자계획(통상적으로 4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공표)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D램 및 NAND 플래쉬 가격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어 공격적인 CAPEX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해외 경쟁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점도 동사에게 비우호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 ■ Probe Card 시장의 어려움은 계열사들과 더불어 이겨낼 것으로 기대

Probe Card는 12inch 세라믹 기판, Interposer, Probe Pin, PCB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세라믹 기판, Probe Pin은 모회사인 동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품은 계열사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타이스일렉은 Interposer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PCB의 경우 50층 이상의 고다층 PCB 적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에스디에이테크놀로지(동사 지분율 69%)가 생산하고 있다. 에스디에이테크놀로지의 경우 올해 30억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연결 기준 순이익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타이스일렉의 경우 올해 설비 증설을 위한 투자 집행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전방산업의 CAPEX 윤곽이 드러나는 내년을 기다리며...

전방산업의 수요부진, 해외 경쟁사들의 국내 시장 진입 등으로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650억원(-35.6% YoY) 및 영업이익 24억원(-84.8% YoY)으로 지난해 대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3년 실적은 1) 올해 극심한 수주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2) LED 조명 시장 확산에 따른 수혜 등으로 2012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제조 업체들의 CAPEX 발표가 예상 대비 높게 발표 될 경우를 제외하고선 단기 모멘텀은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2~3년간 반도체 업황이 지속적으로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시장 재편성에 따른 소수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동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매출액 (십억원)	증감률 (%)	영업이익 (십억원)	증감률 (%)	순이익 (십억원)	증감률 (%)	EPS (원)	PER (x)	PBR (x)	ROE (%)	부채비율 (%)
2009A	60.3	(19.9)	5.6	(14.7)	4.1	(42.7)	1,454	NM	NM	5.5	13.2
2010A	84.9	40.8	10.0	78.2	8.4	125.2	3,272	NM	NM	10.2	11.4
2011A	101.0	19.0	15.6	55.9	13.1	68.2	1,584	8.3	1.1	14.1	14.6
2012F	65.0	(35.6)	2.4	(84.8)	4.2	(73.4)	393	18.6	0.7	3.5	6.5
2013F	78.0	20.0	6.6	177.5	8.0	91.2	681	10.8	0.7	6.3	8.2

주: 12009~10년도 K-GAAP 개별 기준. 2011년도 이후 K-IFRS 별도 기준 2. EPS, BPS는 각각 지분법이익이 반영된 조정당기순이익, 조정자본총계를 이용해 계산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2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04(화)	12/05(수)	12/06(목)	12/07(금)	12/10(월)	12/11(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35.18	1,947.04	1,949.62	1,957.45	1,957.42	1,964.62	
	등락폭	-4.84	11.86	2.58	7.83	-0.03	7.20	
	등락종목	상승(상한)	368(7)	365(4)	387(10)	409(8)	364(8)	385(3)
		하락(하한)	430(5)	444(5)	429(3)	395(1)	465(7)	417(6)
	ADR	82.86	81.96	84.26	85.29	84.70	88.61	
	이격도	10 일	100.87	101.16	101.03	101.19	100.94	101.10
		20 일	101.52	102.11	102.16	102.42	102.27	102.45
	투자심리	50	6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288	484	336	413	361	400	
거래대금 (십억 원)	2,799	3,994	4,598	4,412	3,607	4,427		
코스닥	코스닥지수	502.71	496.50	488.03	489.22	489.59	481.59	
	등락폭	3.74	-6.21	-8.47	1.19	0.37	-8.00	
	등락종목	상승(상한)	463(10)	275(7)	339(6)	489(7)	412(8)	306(3)
		하락(하한)	444(4)	660(11)	587(3)	437(3)	509(10)	622(16)
	ADR	82.53	79.20	78.40	79.06	78.42	79.51	
	이격도	10 일	101.15	99.81	98.28	98.72	98.92	97.54
		20 일	100.21	99.19	97.80	98.35	98.74	97.44
	투자심리	60	60	50	50	60	60	
	거래량 (백만 주)	346	423	354	366	296	346	
거래대금 (십억 원)	1,646	2,079	1,975	1,967	1,450	1,596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906.5	1,276.9	1,217.8	195.5	162.9	306.1	54.6	36.4	331.1	52.0
	매도	2,187.4	1,083.3	1,131.1	281.7	152.0	280.0	49.6	36.8	211.5	51.4
	순매수	<b>-280.9</b>	<b>193.6</b>	<b>86.7</b>	<b>-86.2</b>	<b>10.8</b>	<b>26.1</b>	<b>5.0</b>	<b>-0.5</b>	<b>119.5</b>	<b>0.6</b>
	12월 누계	<b>-757.8</b>	<b>1,196.0</b>	<b>-382.3</b>	<b>-85.2</b>	<b>-17.8</b>	<b>-161.3</b>	<b>-11.1</b>	<b>-23.5</b>	<b>185.3</b>	<b>-55.9</b>
	12년 누계	-13,025.8	14,328.7	3,537.3	1,474.3	2,639.5	-5,005.8	71.8	475.3	3,445.0	-4,840.2
코스닥	매수	1,450.8	67.2	78.7	9.4	15.2	25.8	2.4	3.4	17.5	14.6
	매도	1,421.0	68.3	105.8	16.8	14.3	39.8	8.6	5.2	18.3	16.2
	순매수	<b>29.8</b>	<b>-1.1</b>	<b>-27.1</b>	<b>-7.4</b>	<b>0.9</b>	<b>-14.0</b>	<b>-6.2</b>	<b>-1.8</b>	<b>-0.8</b>	<b>-1.6</b>
	12월 누계	<b>67.1</b>	<b>-24.1</b>	<b>-91.0</b>	<b>-32.7</b>	<b>-1.2</b>	<b>-58.7</b>	<b>-13.2</b>	<b>-5.4</b>	<b>13.2</b>	<b>48.0</b>
	12년 누계	1,264.5	18.6	-492.4	14.6	78.8	-606.3	-285.0	-39.1	330.9	-790.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49,866	전기,전자	-41,389
운수장비	20,411	서비스업	-17,093
금융업	18,037	유통업	-10,272
LG화학	28,487	삼성전자	-17,124
현대중공업	15,533	NHN	-14,266
금호석유	13,730	삼성전기	-11,933
POSCO	10,744	SK	-7,663
TIGER 200	9,339	LG디스플레이	-7,087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47,998	전기,전자	-12,037
금융업	37,791	전기가스업	-8,379
화학	26,713	서비스업	-5,810
신한지주	14,083	삼성전기	-14,152
대우조선해양	12,269	한국전력	-6,674
현대중공업	10,765	LG	-4,875
호남석유	9,656	KT	-4,683
두산중공업	9,579	일진디스플레이	-3,84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금융업	2,212	전기,전자	-3,491
운수창고	1,545	증권	-3,190
철강및금속	1,423	화학	-1,564
POSCO	1,920	대우증권	-3,367
하나금융지주	1,642	삼성전자	-2,029
LG상사	1,339	제일모직	-1,982
KB금융	1,160	SK하이닉스	-1,872
대림산업	1,008	KODEX 레버리지	-1,359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6,066	전기,전자	-8,883
금융업	11,853	서비스업	-6,069
철강및금속	6,272	유통업	-4,343
대우조선해양	12,065	TIGER 200	-8,846
우리금융	7,338	KOSEF 200	-7,776
현대건설	5,955	삼성전기	-5,602
현대제철	4,932	현대차	-3,907
현대중공업	4,582	대림산업	-3,288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75,413	전기,전자	-59,816
운수장비	57,902	서비스업	-38,481
금융업	55,769	유통업	-27,245
대우조선해양	34,238	삼성전기	-21,406
LG화학	31,684	NHN	-19,748
현대중공업	27,217	삼성전자	-13,472
호남석유	23,996	호텔신라	-8,591
우리금융	22,705	대우인터내셔널	-8,464
금호석유	20,577	삼성SDI	-7,986
KODEX 레버리지	20,060	KT	-7,508
신한지주	18,257	기아차	-7,407
POSCO	14,336	한국가스공사	-7,009
두산중공업	13,380	CJ	-6,869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40,534	음식료품	-14,836
운수장비	40,045	통신업	-3,159
서비스업	36,507	전기가스업	-481
기아차	20,985	오리온	-16,041
LG화학	20,277	삼성전자	-14,805
현대건설	19,911	KB금융	-14,153
삼성전기	17,732	대우조선해양	-10,596
NHN	13,903	SK텔레콤	-7,748
현대제철	13,786	호남석유	-5,911
삼성중공업	12,034	KODEX 인버스	-5,346
LG디스플레이	11,578	한진해운	-4,181
삼성SDI	9,325	OCI	-3,971
LG전자	9,096	S-Oil	-3,52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3,543	IT부품	-5,434
전문기술	519	통신서비스	-2,959
오락,문화	426	화학	-2,931
에스엠	3,805	SK브로드밴드	-2,958
네오위즈게임즈	1,466	에이블씨엔씨	-1,881
네오위즈	1,012	인터플렉스	-1,743
태광	838	게임빌	-1,717
OCI머티리얼즈	520	옵트론텍	-1,074

연 기 금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금속	2,237	계약	-3,006
반도체	966	디지털컨텐츠	-1,336
기계,장비	927	소프트웨어	-432
포스코엠텍	1,798	셀트리온	-2,586
웰크론한텍	1,176	멜파스	-811
CJ오쇼핑	931	게임빌	-643
덕산하이메탈	819	로엔	-505
태웅	593	컴투스	-48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연구,개발	388	계약	-1,448
의료,정밀기기	201	방송서비스	-581
디지털컨텐츠	199	화학	-572
바이로메드	368	에스텍파마	-1,028
코오롱생명과학	277	휴온스	-666
게임빌	220	잉크테크	-511
성우하이텍	205	CJ오쇼핑	-498
뷰웍스	162	멜파스	-317

보 험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장비	2,005	오락,문화	-1,789
출판,매체복제	1,079	금속	-1,663
디지털컨텐츠	1,023	화학	-1,600
웰크론한텍	1,942	파라다이스	-1,776
네오위즈게임즈	1,545	포스코엠텍	-1,213
에스엠	1,310	바이오랜드	-871
서울반도체	713	성광밴드	-729
파트론	695	위메이드	-510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3,957	IT부품	-7,777
기계,장비	2,215	계약	-6,702
연구,개발	1,218	화학	-4,626
에스엠	4,748	SK브로드밴드	-4,298
웰크론한텍	3,333	셀트리온	-3,048
네오위즈게임즈	2,511	멜파스	-2,603
파트론	1,358	게임빌	-2,423
서울반도체	1,278	CJ오쇼핑	-2,208
태광	1,269	인터플렉스	-2,168
바이로메드	1,232	에스텍파마	-2,002
포스코엠텍	999	에이블씨엔씨	-1,916
네오위즈	858	성광밴드	-1,883
덕산하이메탈	777	코나아이	-1,737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4,166	IT부품	-4,546
계약	4,148	오락,문화	-3,170
반도체	2,114	디지털컨텐츠	-2,141
셀트리온	6,060	파라다이스	-3,156
에이블씨엔씨	1,959	네오위즈게임즈	-1,664
다음	1,695	인터플렉스	-1,525
유진테크	1,630	CJ오쇼핑	-1,315
컴투스	1,473	게임빌	-1,303
EG	1,334	이엘케이	-1,171
SK브로드밴드	1,317	파트론	-1,167
서울반도체	1,145	하나투어	-941
성광밴드	876	휴비츠	-786
비트컴퓨터	847	정보산업	-724

주: 외국인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TIGER	삼성그룹	15 일	LS산전 13 일
	삼성증권	12 일	삼성전기 11 일
	대우조선해양	9 일	현대건설 10 일
	KODEX 레버리지	9 일	넥센타이어 10 일
	대우증권	8 일	삼성SDI 10 일
	동양기전	7 일	하나금융지주 10 일
	세종공업	7 일	기아차 9 일
	KODEX 건설	7 일	롯데제과 9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성우하이텍	15 일	씨앤케이인터	19 일
젠택스	11 일	테크노세미켐	15 일
이트레이드증권	9 일	에이테크솔루션	10 일
SK컴즈	7 일	현진소재	7 일
서울반도체	6 일	엘앤에프	7 일
OCI머티리얼즈	5 일	주성엔지니어링	6 일
게임하이	4 일	KCC건설	5 일
하이록코리아	3 일	신화인터텍	5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84,746	삼성전자	317,960
SK하이닉스	93,019	LG화학	63,076
POSCO	84,435	LG전자	61,060
대우조선해양	68,180	삼성전기	60,277
LG화학	42,998	기아차	51,313
현대제철	42,900	현대건설	51,013
현대중공업	39,697	하나금융지주	34,356
삼성중공업	38,100	NHN	34,316

KOSDAQ			
기	관	외	국 인
성우하이텍	10,696	다음	7,073
웰크론한텍	3,586	셀트리온	5,858
셀바이오텍	3,435	에스에프에이	4,744
네오위즈게임즈	3,161	EG	3,724
포스코엠텍	3,121	유진테크	2,365
청담러닝	2,793	SK브로드밴드	1,868
OCI머티리얼즈	2,492	오스템임플란트	1,860
매일유업	2,072	컴투스	1,718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75,413	22,703 98,116
운수장비		57,902	40,045 97,947
금융업		55,769	4,772 60,542
LG화학		31,684	20,277 51,961
현대중공업		27,217	7,631 34,848
현대건설		7,406	19,911 27,317
우리금융		22,705	1,992 24,697
신한지주		18,257	5,338 23,595
현대제철		9,165	13,786 22,950
KODEX 레버리지		20,060	1,219 21,280
대림산업		12,263	5,982 18,246
삼성중공업		6,030	12,034 18,064
하나금융지주		3,233	8,978 12,211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계,장비		2,215	94 2,309
금속		491	1,544 2,035
인터넷		266	1,683 1,949
웰크론한텍		3,333	75 3,408
서울반도체		1,278	1,145 2,422
다음		254	1,695 1,948
EG		4	1,334 1,338
바이로메드		1,232	83 1,315
포스코엠텍		999	119 1,118
인탑스		366	532 899
태웅		629	256 884
안랩		0	751 751
메가스터디		74	635 709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TIGER 소프트웨어	17 일	대교	11 일	테크노세미켄	8 일	성우하이텍	10 일
금호전기	16 일	남양유업	9 일	AP시스템	7 일	네오위즈게임즈	6 일
SK케미칼	12 일	일양약품	9 일	네패스	6 일	동국산업	5 일
현대글로벌비스	12 일	대우조선해양	7 일	심택	6 일	태광	5 일
삼성화재	11 일	금호전기	5 일	현진소재	6 일	파라다이스	4 일
STX조선해양	9 일	동국제강	5 일	크레듀	6 일	인터플렉스	4 일
KOSEF 인버스	9 일	오리온	5 일	다날	5 일	비에이치아이	4 일
대덕GDS	8 일	알앤엘바이오	5 일	우주일렉트로	5 일	한국토지신탁	3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97,468	POSCO	-28,798	컴투스	-22,230	네오위즈게임즈	-22,728
NHN	-123,050	오리온	-27,446	파라다이스	-19,322	에스엠	-14,673
KODEX 인버스	-59,745	현대차	-21,435	에스엠	-12,772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3,325
기아차	-44,059	GS	-19,527	에이블씨엔씨	-12,137	네오위즈	-5,810
LG전자	-41,579	대우조선해양	-17,513	씨젠	-7,673	파라다이스	-5,257
삼성화재	-30,586	삼성물산	-14,920	KG이니시스	-7,243	에이블씨엔씨	-3,008
한국가스공사	-28,966	SK텔레콤	-14,722	실리콘웍스	-5,422	멜파스	-2,880
삼성전기	-27,646	한진해운	-11,624	멜파스	-4,782	매일유업	-2,353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음식료품	-6,286	-14,836	-21,122	IT부품	-7,777	-4,546	-12,323
전기가스업	-13,831	-481	-14,312	방송서비스	-3,083	-1,707	-4,790
운수창고	-7,410	-123	-7,534	오락,문화	-877	-3,170	-4,048
삼성전자	-13,472	-14,805	-28,277	파라다이스	-713	-3,156	-3,869
KODEX 인버스	-5,788	-5,346	-11,134	게임빌	-2,423	-1,303	-3,726
삼성물산	-5,324	-2,442	-7,765	인터플렉스	-2,168	-1,525	-3,693
현대글로벌비스	-6,720	-684	-7,404	CJ오쇼핑	-2,208	-1,315	-3,523
한국가스공사	-7,009	-299	-7,309	에스텍파마	-2,002	-62	-2,064
SK	-6,310	-54	-6,363	유프론텍	-1,333	-379	-1,713
일진디스플레이	-5,483	-616	-6,099	GS홈쇼핑	-865	-684	-1,550
삼성화재	-3,643	-2,095	-5,738	이엘케이	-336	-1,171	-1,507
GKL	-3,700	-387	-4,088	비에이치	-1,171	-57	-1,228
LG유플러스	-2,766	-1,237	-4,002	인프라웨어	-579	-597	-1,17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GS	93	6,454	
SK하이닉스	183	4,769	
삼성전자	3	3,814	
KT	89	3,404	
POSCO	9	3,155	
LG전자	35	2,658	
삼성중공업	62	2,374	
호남석유	10	2,303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66	1,769	
SK브로드밴드	342	1,677	
휴온스	40	544	
삼천당제약	177	524	
컴투스	9	440	
에스엠	10	393	
다음	4	365	
비에이치	29	32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038	4,530,180
LG전자	44,732	3,345,982
POSCO	8,141	2,743,434
OCI	9,995	1,544,238
현대차	4,532	1,030,952
NHN	3,343	808,898
SK하이닉스	26,691	693,973
오리온	534	557,678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9,932	802,170
서울반도체	5,584	137,078
에스엠	1,497	58,398
덕산하이메탈	2,806	56,954
다음	470	42,973
게임빌	371	39,960
파라다이스	2,136	37,166
에이블씨엔씨	517	37,14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금융업	2,049	서비스업	-4,926
전기가스업	1,371	운수장비	-1,995
철강및금속	913	화학	-1,904
POSCO	2,092	제일기획	-3,782
신한지주	1,342	두산인프라코어	-1,818
하나금융지주	1,279	동국제강	-1,321
SK하이닉스	882	한화케미칼	-1,214
LG전자	857	한진해운	-860
삼성엔지니어링	545	대우조선해양	-829
경동가스	538	LG	-816
호텔신라	520	외환은행	-712
대우건설	514	기아차	-634
우리들생명과학	468	KB금융	-512

KOSDAQ			
순 증		순 감	
통신서비스	1,727	기계,장비	-334
IT부품	731	의료,정밀기기	-150
소프트웨어	675	금속광업	-78
SK브로드밴드	1,730	오성엘에스티	-400
대아티아이	342	솔고바이오	-308
네오위즈	265	서울반도체	-299
엘비세미콘	259	주성엔지니어링	-249
코엔텍	243	잉크테크	-124
셀트리온	228	아미노로직스	-81
스카이뉴팜	223	네오위즈게임즈	-80
에스엠	197	씨엔케이인터	-78
하츠	173	이지바이오	-78
티케이케미칼	151	동국S&C	-7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05(수)	12/06(목)	12/07(금)	12/10(월)	12/11(화)
외국인	14,522.3	1,389.6	1,024.1	139.8	213.9	194.6	278.8	193.6
기관계	3,624.0	-295.5	-7.7	80.7	-11.0	104.4	-255.3	86.7
(투신)	-4,979.7	-135.3	-56.1	-6.8	60.9	-5.5	-129.5	26.1
(연기금)	3,703.1	314.4	254.3	49.5	57.7	12.7	24.1	117.0
(은행)	474.8	-23.9	-9.8	-3.6	10.5	-13.1	-3.0	-0.5
(보험)	2,650.3	-7.0	-13.4	20.2	-32.6	5.9	-17.7	10.8
개인	-13,306.7	-1,038.8	-975.0	-161.9	-207.0	-304.5	-20.7	-280.9
기타	-4,839.5	-55.3	-41.5	-58.6	4.1	5.4	-2.8	0.6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2/04(화)	12/05(수)	12/06(목)	12/07(금)	12/10(월)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35.18	1,947.04	1,949.62	1,957.45	1,957.42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7641.0	17223.0	16799.8	17090.1	16897.4
(증감액)	2735.7	1996.5	3611.7	-267.0	-418.0	-423.2	290.3	-192.7
(회전율)	52.6	51.5	34.2	26.1	36.5	39.9	37.3	30.6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430.9	-477.1	-446.5	163.1	-290.2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243.8	4237.3	4219.8	4209.0	4172.5
미수금	240.2	192.3	187.7	105.8	110.5	104.3	117.5	136.6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2/03(월)	12/04(화)	12/05(수)	12/06(목)	12/07(금)
전체 주식형	-60	-71	-60	-71	-60	-71	-60	-71
(ex. ETF)	-59	-110	-59	-110	-59	-110	-59	-110
국내 주식형	-32	-43	-32	-43	-32	-43	-32	-43
(ex. ETF)	-31	-81	-31	-81	-31	-81	-31	-81
해외 주식형	-27	-28	-27	-28	-27	-28	-27	-28
(ex. ETF)	-27	-30	-27	-30	-27	-30	-27	-30
주식 혼합형	-21	-1	-21	-1	-21	-1	-21	-1
채권 혼합형	27	-39	27	-39	27	-39	27	-39
채권형	32	-102	32	-102	32	-102	32	-102
MMF	-1,271	-2,030	-1,271	-2,030	-1,271	-2,030	-1,271	-2,03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05(수)	12/06(목)	12/07(금)	12/10(월)	12/11(화)
한 국	13,033	1,291	2,805	129	197	183	259	185
대 만	4,461	1,249	1,852	219	251	95	26	306
인 도	21,034	933	956	-	393	-	-	-
인도네시아	1,539	-161	277	-58	-18	-48	-25	-
태국	1,890	141	426	-	58	-3	-	-
남아공	-719	316	371	75	116	-4	88	-
필리핀	2,275	110	96	82	7	7	0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12/04(화)	12/05(수)	12/06(목)	12/07(금)	12/10(월)	12/11(화)
회사채 (AA-)	4.21	3.31	3.32	3.28	3.25	3.27	3.27
회사채 (BBB-)	10.01	8.75	8.77	8.75	8.74	8.76	8.76
국고채 (3년)	3.34	2.84	2.86	2.83	2.81	2.83	2.83
국고채 (5년)	3.46	2.91	2.95	2.94	2.93	2.96	2.97
국고채 (10년)	3.79	3.04	3.08	3.07	3.06	3.09	3.09
미 국채 (10년)	1.88	1.60	1.59	1.59	1.60	1.62	-
일 국채 (10년)	0.99	0.71	0.70	0.70	0.70	0.70	-
원/달러	1,151.80	1,083.40	1,081.50	1,083.00	1,081.70	1,079.00	1,076.70
원/엔	1,492.00	1,319.94	1,315.00	1,314.00	1,308.00	1,311.00	1,308.00
엔/달러	77.24	82.08	82.26	82.42	82.70	82.30	82.37
달러/유로	1.29	1.31	1.31	1.30	1.29	1.29	1.29
DDR3 1Gb (1333MHz)	0.64	0.64	0.64	0.64	0.64	0.64	-
NAND Flash 16Gb (MLC)	2.81	1.86	1.86	1.85	1.82	1.83	-
CRB 지수	305.30	297.23	297.23	295.91	298.01	293.22	-
LME 지수	3,306.0	3,471.8	3,486.9	3,464.7	3,464.7	3,529.9	-
BDI	1,738	1,077	1,022	966	966	937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88.50	87.88	86.26	86.07	85.56	-
금 (달러/온스)	1,566.80	1,695.80	1,693.80	1,695.30	1,705.50	1,714.4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212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2월 5일	256.63	257.20	0.16	0.57	0.46	171,016	105,170	2,158
12월 6일	257.27	257.55	0.14	0.28	0.18	161,919	106,046	876
12월 7일	258.78	259.35	0.12	0.57	0.41	160,713	106,620	574
12월 10일	259.03	259.15	0.06	0.12	0.21	175,876	96,223	-10,397
12월 11일	260.12	260.10	0.06	-0.02	0.11	136,736	75,660	-20,563

###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2월 5일	3,342	-1,949	-1,695	-1,500	320	49	-170	0
12월 6일	487	-1,331	703	188	-618	-2	283	0
12월 7일	5,613	-3,123	-2,652	-1,845	-450	157	326	0
12월 10일	-2,505	2,367	336	438	-1,267	43	336	0
12월 11일	1,821	-1,183	-721	-805	-600	-6	532	0
누적포지션	2,525	-2,285	-1,282	-1,783	725	-1,581	894	496

###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2월 5일	701	858	157	618	723	104	83	135	52	6,027	10,400
12월 6일	794	712	-82	654	664	10	140	49	-92	6,048	10,328
12월 7일	570	760	191	537	610	72	33	151	118	6,026	10,425
12월 10일	729	798	69	604	754	150	125	44	-81	6,039	10,357
12월 11일	777	1,036	258	699	962	263	79	7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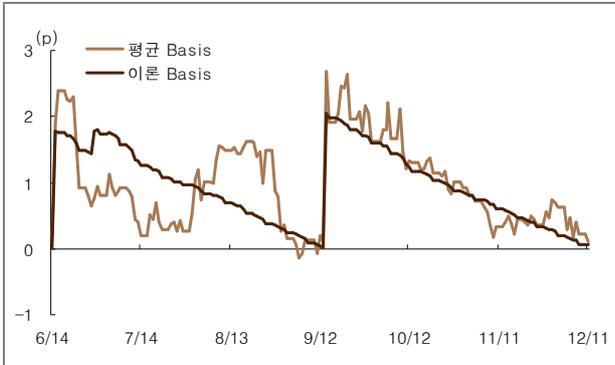
###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 / 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25.07	-1,549	26,167	0.01	272.50	12.80	1	1	49.04
	22.52	-4,384	69,507	0.02	270.00	9.95	67	1	29.83
	18.68	-1,989	120,678	0.03	267.50	7.35	441	17	16.33
	17.55	-2,265	239,191	0.12	265.00	5.10	4,661	191	21.65
	17.32	-1,554	403,783	0.48	262.50	2.95	20,169	1,420	19.43
	17.82	529	300,014	1.45	260.00	1.34	231,089	3,515	18.48
	18.94	68	66,245	3.15	257.50	0.52	320,850	4,878	19.45
	19.51	-256	8,312	5.30	255.00	0.19	245,951	4,055	21.10
	20.93	-422	2,012	7.70	252.50	0.08	148,192	2,167	23.62
	5.00	-182	565	10.15	250.00	0.04	106,148	-268	26.60
	5.00	-186	280	12.65	247.50	0.02	30,544	-740	2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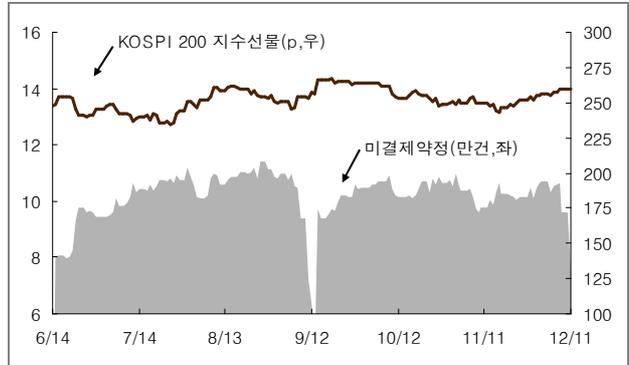
## ■ 주요 지표

###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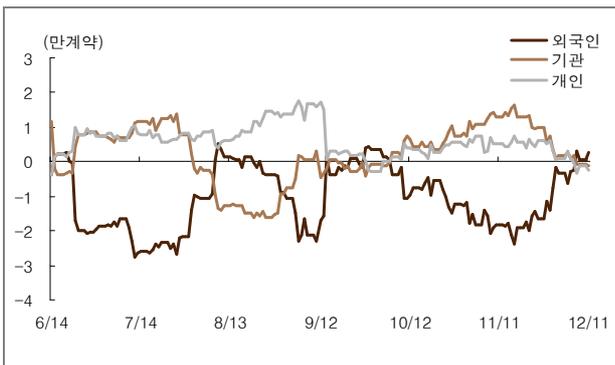
- 평균 Basis: 0.11 (전 거래일 대비 0.10 하락)
- 이론 Basis: 0.06

###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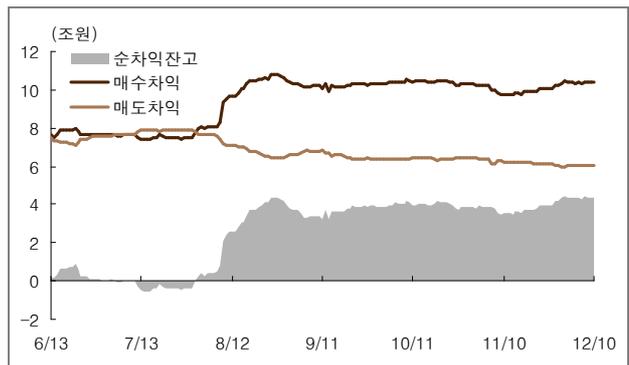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20,563 계약 감소한 75,660 계약
- 선물가격(260.10): 전 거래일 대비 0.95p 상승

###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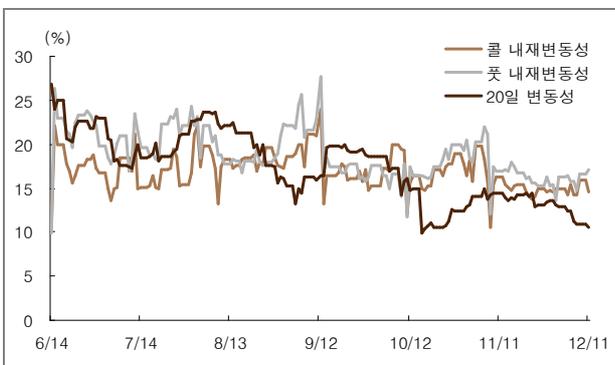
- 외국인: 1,821 계약 순매수
- 기관: 721 계약 순매도 / 개인: 1,183 계약 순매도

###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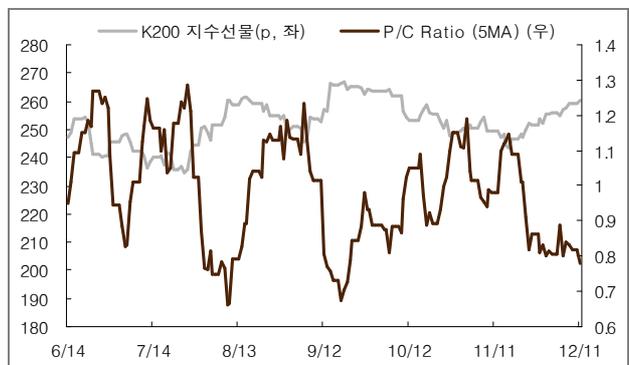
- 차익거래: 52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2,634 억원 순매수

###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4.6% / 풋 17.1%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0.52% 기록

###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78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9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3	4	5	6	7
韓> (12/1) 11월 수출 YoY (3.9%, 1.6%, 1.2%) (12/1) 11월 수입 YoY (0.7%, 0.6%, 1.5%) 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6%, 2.0%, 2.1%) 美> 11월 ISM 제조업 (49.5, 51.4, 51.7) 10월 건설지출 MoM (1.4%, 0.5%, 0.6%) 유럽> (12/1) 스페인 배드뱅크 출범 11월 유로존 PMI 제조업 속보치 (46.2, 46.2, 46.2)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中> (12/1) 11월 PMI 제조업 (50.6, 50.8, 50.2) 11월 PMI 비제조업 (55.6, n/a, 55.5) 11월 HSBC PMI 제조업 (50.5, 50.4, 49.5)	美> 11월 총 차량 판매 (15.46M, 15.00M, 14.22M)	韓> 11월 외환보유액 (\$326.09B, n/a, \$323.46B)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4.5%, n/a, -0.9%) 11월 ADP취업자 변동 (11.8만, 12.5만, 15.8만) 11월 ISM 비제조업 (54.7, 53.5, 54.2) 10월 제조업수주 MoM (0.8%, 0.0%, 4.8%) 유럽> 11월 유로존 PMI 서비스 속보치 (46.7, 45.7, 45.7) 10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3.6%, -0.8%, -0.8%) 中> 11월 HSBC PMI 서비스 (52.1, n/a, 53.5)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7.0만, 38.0만, 39.3만) 유럽> ECB 금리 공시 (0.75%, 0.75%, 0.75%) BOE 금리 공시 (0.50%, 0.50%, 0.50%)	美> 11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14.6만, 8.5만, 17.1만) 11월 실업률 (7.7%, 7.9%, 7.9%) 10월 소비자신용지수 (\$14.158B, \$10.000B, \$11.365B) 12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속보치 (74.5, 82.0, 82.7)
10	11	12	13	14
韓> 1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0.2%, n/a, 0.2%) 유럽> 12월 섀넥스 투자자대지수 (-16.8, -16.9, -18.8) 中> (12/9) 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0%, 2.1%, 1.7%) (12/9) 1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2.2%, -2.0%, -2.8%) (12/9) 11월 산업생산 YoY (10.1%, 9.8%, 9.6%) (12/9) 11월 소매판매 YoY (14.9%, 14.6%, 14.5%) 11월 무역수지 (\$19.63B, \$26.85B, \$31.99B) 11월 수출 YoY (2.9%, 9.0%, 11.6%) 11월 수입 YoY (0.0%, 2.0%, 2.4%) 日> 10월 경상수지 YoY (-29.4%, -59.0%, -68.7%)	美> 1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n/a, 92.5, 93.1) 10월 무역수지 (n/a, -\$42.7B, -\$41.5B) 中> 11월 신규 위안 대출 (522.9B, 550.0B, 505.2B) 11월 통화공급 M2 YoY (13.9%, 14.1%, 14.1%) 日> 11월 통화공급 M2 YoY (2.1%, 2.3%, 2.3%)	韓> 11월 실업률 (n/a, 3.1%, 3.0%) 10월 통화공급 M2 YoY (n/a, n/a, 0.1%)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4.5%) 11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1.0%, 0.4%) 11월 월간 재정수지 (n/a, -\$150.0B, -\$137.3B) FOMC 금리 결정 (n/a, 0.25%, 0.25%) 유럽> 10월 유로권 산업생산 YoY (n/a, -2.4%, -2.3%)	韓> 금통위 금리결정 (n/a, 2.75%, 2.75%)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7.0만, 37.0만) 1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1.8%, 2.3%) 11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n/a, 0.5%, -0.3%) 10월 기업재고 MoM (n/a, 0.4%, 0.7%) 유럽> EU 정상 회담 그리스 제2차 구제금융 3차분 지급	韓> 11월 수출물가지수 YoY (n/a, n/a, -5.2%) 11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n/a, -6.4%) 美> 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9%, 2.2%) 11월 산업생산 YoY (n/a, 0.2%, -0.4%) 유럽> 3분기 유로권 고용 YoY (n/a, n/a, -0.6%) 11월 유로권 CPI YoY (n/a, 2.2%, 2.5%) 中> 11월 실질 FDI (미확정) (n/a, -3.1%, -0.2%)
17	18	19	20	21
韓> 11월 할인점 매출 YoY (미확정) 11월 백화점 매출 YoY (미확정) 12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日> (12/16) 조기 총선 실시	美>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	韓> 제18대 대통령선거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1월 주택건설착공 MoM 11월 건축허가 MoM 유럽> 10월 유로권 경상수지 SA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10월 주택가격지수 MoM 11월 기준주택매매 MoM 11월 경기선행지수 MoM 日> BOJ 정책금리 결정	美> 11월 개인소득 MoM 11월 개인소비지수 MoM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야침)

